

## Briefing on Global ESG Trends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지속가능경영은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지속경영, CSR, 사회책임경영, 기업시민활동, ESG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의 의미

지속가능경영을 부르는 용어 >>



###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성

- 자연이 허용하는 한계 범위를 고려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Sustainabilit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while living within the carrying capacity of supporting eco-systems (1991, UNEP,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 지속가능한 발전

-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1987, WCED, Our Common Future)

#### 지속가능경영

-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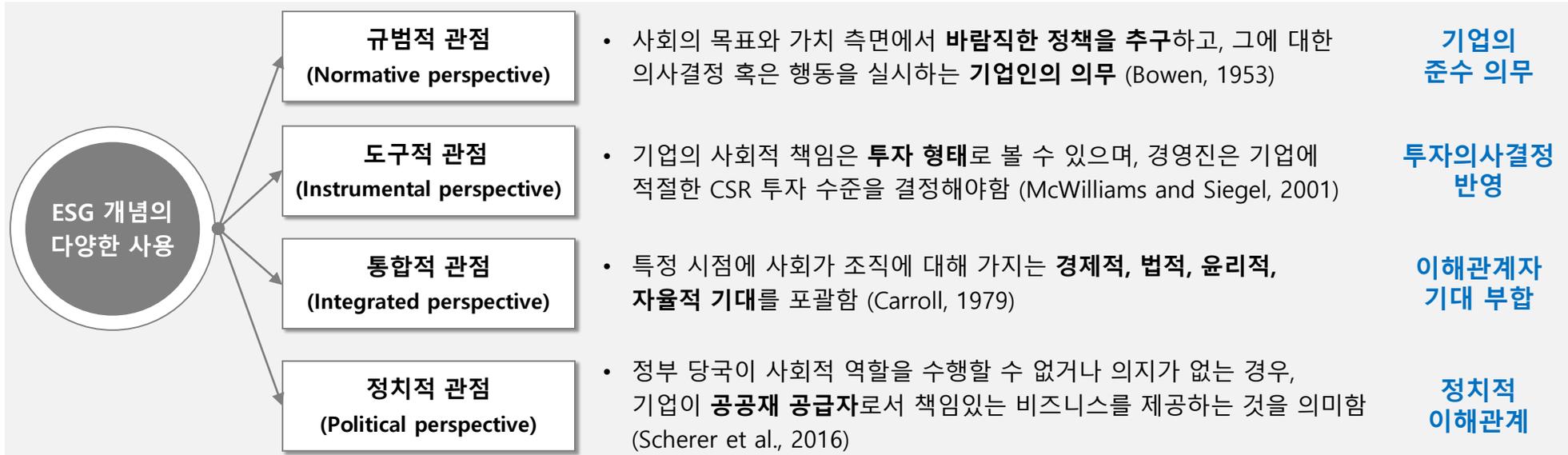
Sustainability 개념 등장 이후 다양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1) 기업의 의무 & 기회 요인, 2) 이해관계자 기대, 3) 투자 의사결정, 4) 정치적 이해관계 맥락 등 다양하게 활용됨

## Timeline of Sustainability Concept



## ❖ Perspectives on Sustainability

Sour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reas Rasche, Mette Morsing, Jeremy Moon (2017)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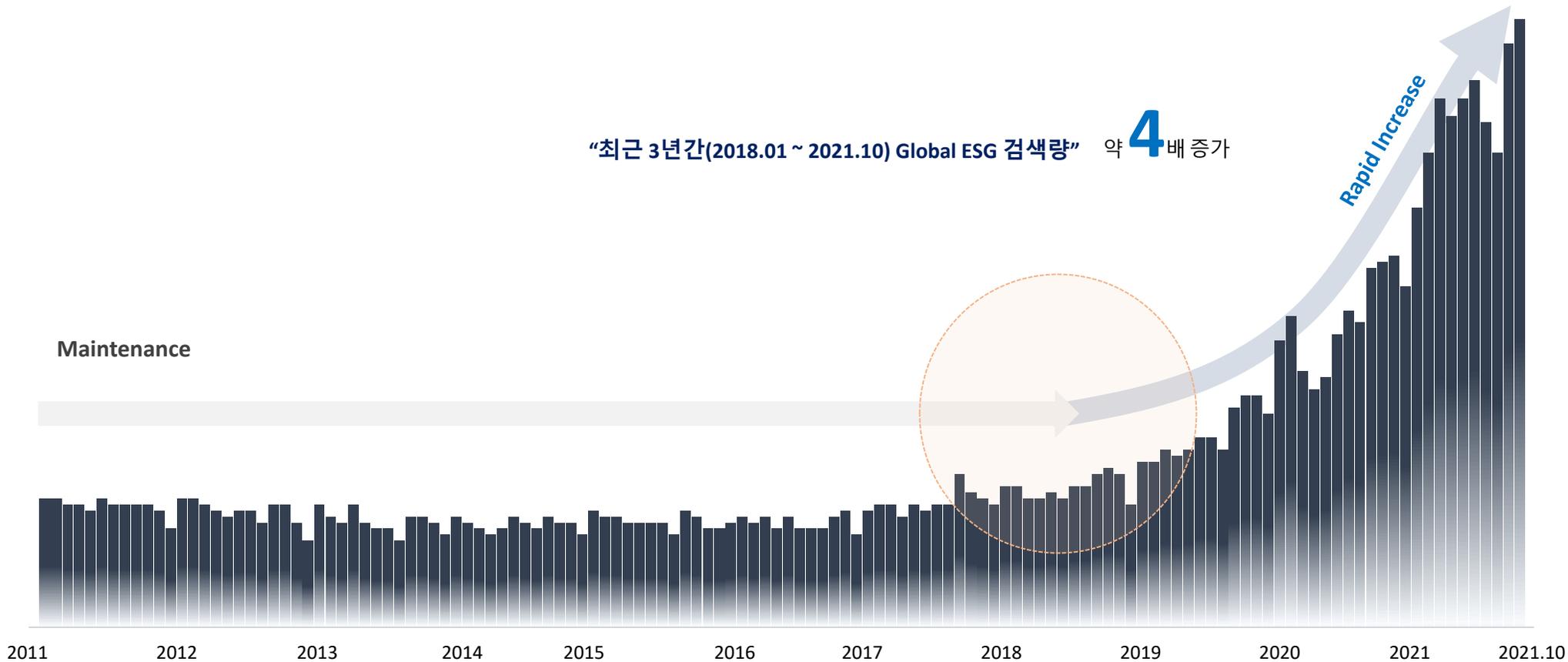


**Why Now ?**

최근 3년 사이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 → 단기간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ESG가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발전하는 단계로 진입

“지난 10년간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던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3년(2018년~현재)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Source : Keyword Research (2021년 10월 2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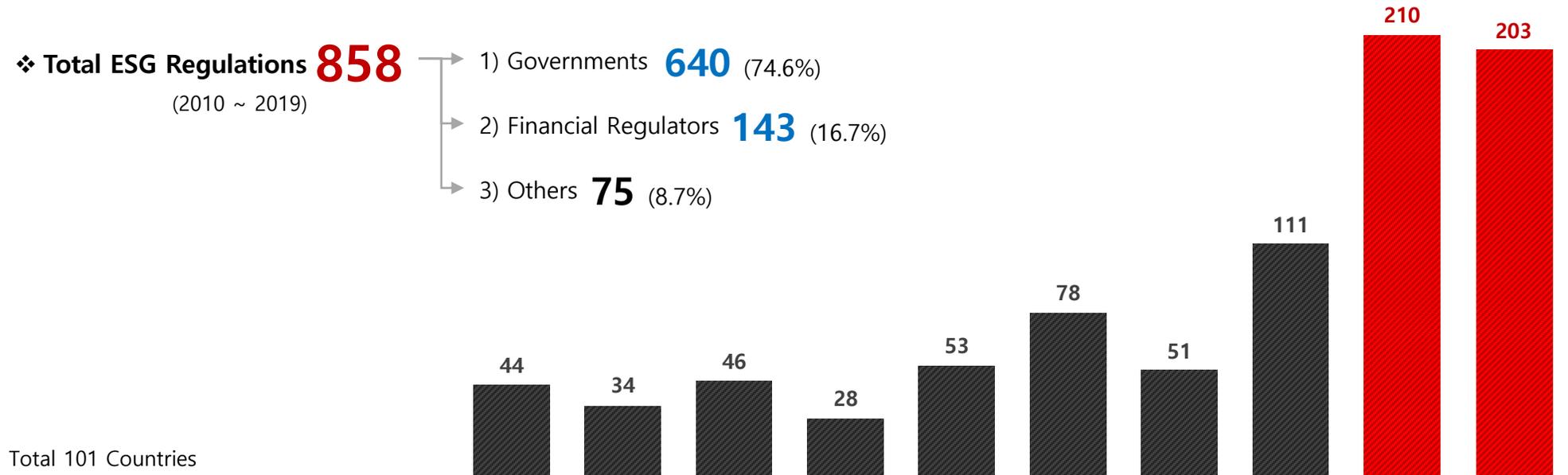


글로벌 ESG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정부의 ESG 규제 도입량이 급증 → 법규를 통한 의무화, 페널티 부과 등 강력한 규제의 도입 진행

글로벌 ESG 규제(Regulation) 도입량 변화

❖ Total ESG Regulations **858**  
(2010 ~ 2019)

- 1) Governments **640** (74.6%)
- 2) Financial Regulators **143** (16.7%)
- 3) Others **75** (8.7%)



Total 101 Countrie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egulators	Central Banks	0	5	0	0	4	3	0	3	0	1
	Industry Bodies	3	7	5	4	0	10	3	8	10	2
	Statutory Bodies	1	2	2	0	0	2	0	0	0	0
	Financial Regulators	10	7	13	7	17	12	16	31	15	15
	Governments	30	13	26	17	32	51	32	69	185	185

Source: 각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자료 기반 MSCI의 분석 Data (KPC 재구성, 2020. 11)

국내 ESG 법제화는 지난 9개월간 115건 발의, 탄소국경세 / 공급망ESG / ESG정보공시는 핵심안건으로 급부상 → 1) 대규모 상장기업, 2) 선진국 수출기업, 3) 공급망 복잡성 높은 기업은 법/규제 영향력 高

## 국내 ESG 관련 법/제도

총 115개 법안 발의 ('20. 06. ~ '21.03. 기준)

환노위	정무위	기재위	법사위	중소위	*기타
57개 (49.5%)	19개 (16.5%)	13개 (11.3%)	12개 (10.4%)	8개 (7%)	6개 (5.3%)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50 탄소중립 (관계부처)	• '21년까지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 '25년까지 수소/전기차 133만대 보급, 53만대 수출 목표로 추진
ESG 정보공개 (금융위원회)	• '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의무화 → '30년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공개 의무화
K-ESG 지표 정립 (산업부)	• '21년 4월, 지침 성격의 ESG 지표 초안 공개 → '21년 하반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거쳐 최종 지표 발표

### ❖ 글로벌 ESG 주요 법/제도

#### 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 '21년 3월, 유럽의회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결의안 투표 完 (찬성 444, 반대 70로 도입 의사결정 完)
- '21년 7월, 유럽위원회 탄소국경조정세 법제화 착수, EU 內 판매되는 모든 제품 단위 과세방안 구체화
- '23년 EU 회원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목표로 추진 ('21년 G7 정상회담 안건으로 탄소국경세 논의 예정)

#### EU,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 '20년 1월, 유럽위원회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연구 完 (공급망 실사 절차 및 결과 대외공개 必)
- '21년 3월, 유럽의회는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입법 권고안 채택 ('21년 6월, 법안 상정 예정)
- EU 內 생산/판매 기업은 공급망 ESG 실사결과 증명 → 불이행 시 EU 시장 우선접근권 박탈 예상

#### 미국, 통상정책의제 內 ESG 강조

- '21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의제 발표 (경제회복 外 노동/인권, 기후변화 강조)
-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임금격차, 강제노동, 여성권익, 노사관계에 관한 리스크 해결 요구
- 탄소국경세 도입,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중립 요구 →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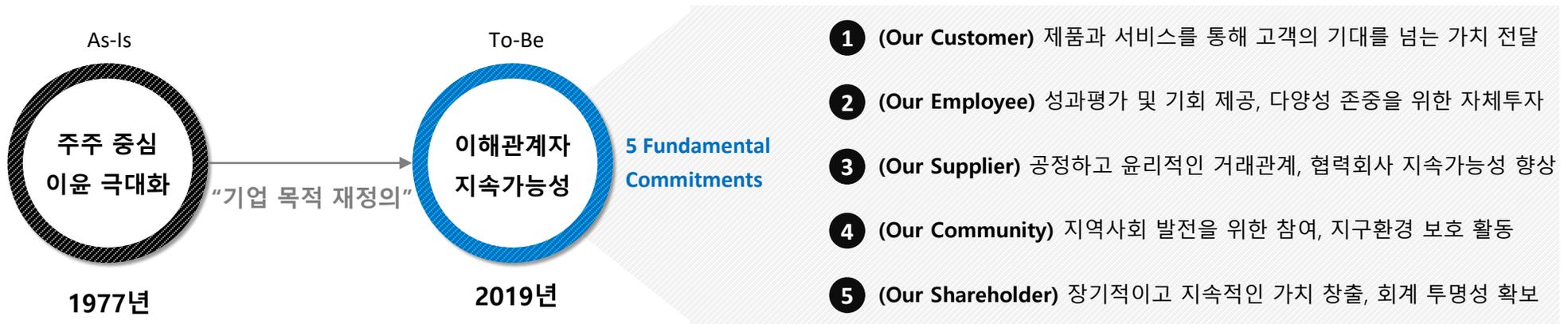
2019년 8월, 미국의 주요 181개 기업 CEO는 42년 만에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 '기업의 목적 성명서'를 발표 (주주가치 중심 이윤 극대화 →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향상)

## 기업의 목적 성명서 발표



- 1972년 3월,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제언, 시장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 Alcoa, General Electric, U.S. Steel이 공동설립 → Amazon, Apple, JP Morgan 등 **193개 기업 참여 중 (18. 10. 기준)**
- 2019년 8월, 주주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기업 목적에 관한 성명서' 발표**  
 "We commit to deliver value to all of them, for the future success of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y"

### ❖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19. 08.)



- ❖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주주/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 이해관계자 Engagement 실시
- ❖ Roundtable 설립 후 40년간 변화가 없었던 기업의 목적을 산업계 자율적 합의로 변경함 → 기업의 실제 행동변화 모니터링 필요

최근 영리기업의 Vision에서는 비영리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환경, 사회)'을 핵심 가치로 포함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 → Patagonia '지구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Mission 제시

## Patagonia Mission Statement

### Old Missio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추구

A Value-driven Company

**Build the Best Product**

### New Mission

(Since 2019)

우리의 상상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지구사회 구현

Our Reason for Being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

### ❖ Core Value >>



#1.

**Longevity & Durability**

최고수준 제품: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생산

#2.

**Do Less Harm,  
More Good**

유해물질 제거: 지구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제품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디자인 최소화**

#3.

**Protection &  
Restoration**

자연환경 보호: 글로벌 아젠다로 등장한 환경 이슈 발굴, **환경 이슈 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Source: Patagonia Webpage, Company Info., Mission Statement, <https://www.patagonia.com/company-info.html>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제품수명 연장, 디자인 최소화, 환경보호 활동, 지속가능성 아젠다 참여를 핵심가치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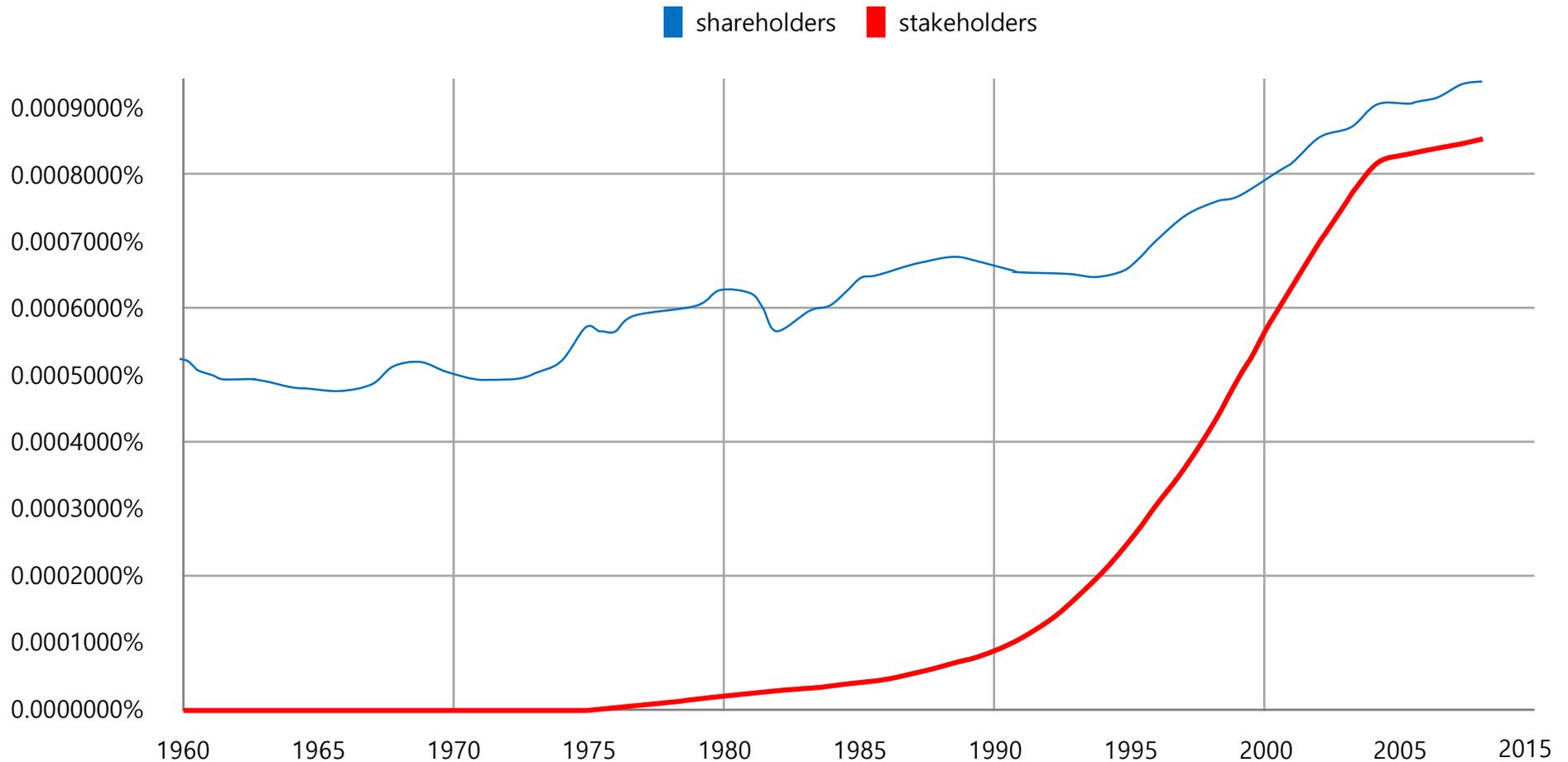
❖ Longevity & Durability & Minimization 개념 도입 → 제품 사용 및 폐기 단계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완화함

2025년, 2030년 시점을 목표로 새로운 Vision 체계를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 & 목표를 재설정  
 → 글로벌 기업의 Vision 특징은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ocial” 개념을 적용

NO.	기업	Industry	Vision Statement	Target Year	정량 목표
1	BASF	화학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	2025	●
2	HP	전자	Create Lasting, Positive Change for the Planet, our People, and Communities	2025	●
3	M&S	소비재	Plan A 2025 Commitments: Making Every Moment Special	2025	●
4	Pirelli	자동차	Sustainability Plan: 2017-2020 with selected target for 2025	2025	●
5	Danone	식품	Danone, One Planet. One Health	2030	●
6	Henkel	소비재	Leading with Innovations, Brands and Technologies	2030	●
7	Hilton	리조트	Doubling Our Investment in Social Impact and Cutting Our Environmental Footprint	2030	●
8	Honda	자동차	Serve People Worldwide with the 'Joy of Expanding Their Life's Potential	2030	
9	HPE	전자	Our Plan for Sustainably Meeting the Technology Demands of the Future	2030	●
10	IKEA	유통	To Create a Better Everyday Life for the many people	2030	
11	Nestle	식품산업	Enhancing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ing to a Healthier Future	2030	●
12	Unilever	소비재	To Make Sustainable Living Commonplace	2030	●

# 주주가치 vs.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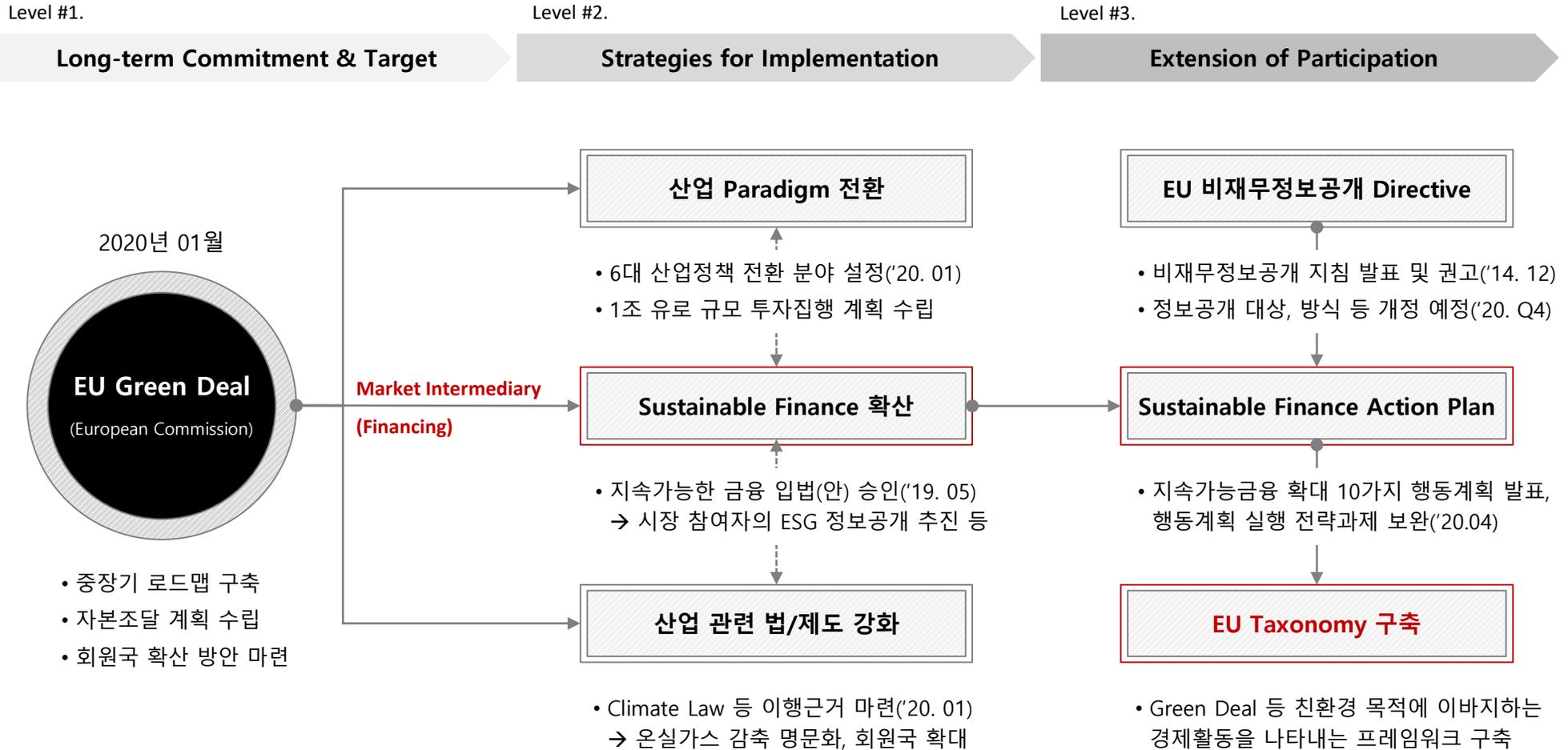
주주가치(이윤) 극대화와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는 상반된 개념이 아님. 더 이상 이윤 극대화의 개념과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의 개념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음



\* Source: Professors Robert Eccles and Gerge Serafeim

**Directions ?**

2020년 1월, EU는 Sustainability Finance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발표 → 10EA Action Plan 제시 & EU Taxonomy 연계 (Capital Investment & Regulation Policy 가속화)



글로벌 기관투자가는 책임투자 Policy 도입, ESG 시나리오 & Impact Measurement 단계에 진입  
 → 향후, 전체 운용자산 ESG 리스크 계량화 완료 (기업: ESG 활동/영향 설명 → ESG Solution 제시)

## 책임투자 방법론 발전 경로

Self-Fulfillment

Institutionalization



Key Objective

**#1 Compliance & Liability**

**#2 Risk Analysis & Management**

**#3 Business Integration**

글로벌 책임투자 원칙과 기준에 선제적 대응, 최소요건 충족

책임투자 수익성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 균형 판단

투자기관 설립목적 및 사업표준 내 ESG 반영,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Main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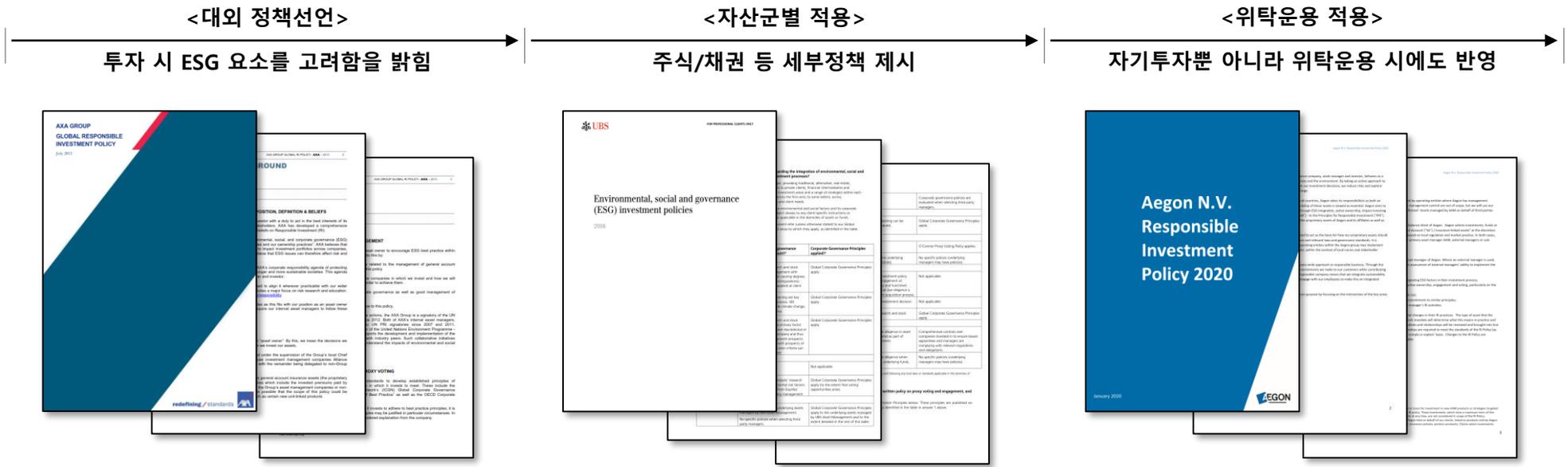
- 책임투자 정책(Policy) 개발
- ESG 리스크 관리 방법론 도입
- ESG 리스크 평가 Pilot Testing
-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 경영참여

- 운용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도출
- 운용자산의 주요 산업 분포현황 파악
- ESG 리스크와 수익률의 연관성 분석
- ESG 고위험 운용자산 List-Up

- ESG 리스크 평가 지표 및 기준 정립
- 개별 운용자산의 ESG 리스크 계량화
- ESG Concept 반영된 사업 확대 (ex. UN PRI 기준 50% 이상)

책임투자 정책은 대외 정책선언 & 자산군별 적용(자산 특성) → 자기투자 + 위탁운용 적용 단계로 발전하며, 정책 내용에 따라 해당 기업의 RI 적용 수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RI Policy (책임투자 정책) 단계별 고도화



### AXA 그룹 글로벌 책임투자 정책 (2013)

- Asset Owner로서 전 자산의 책임투자 선언
- 기업대화, 주주권행사, 유의산업/이슈 관리, 임팩트 투자 등이 시행됨을 명시
- Asset Manager의 ESG 고려 모니터링 실시

### UBS ESG투자 정책 (2016)

-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ESG 투자를 시행하는 자산군 명시
- 각 자산군별 기업대화, ESG 위험 분석, 실사에 ESG 반영 등 ESG 투자 방법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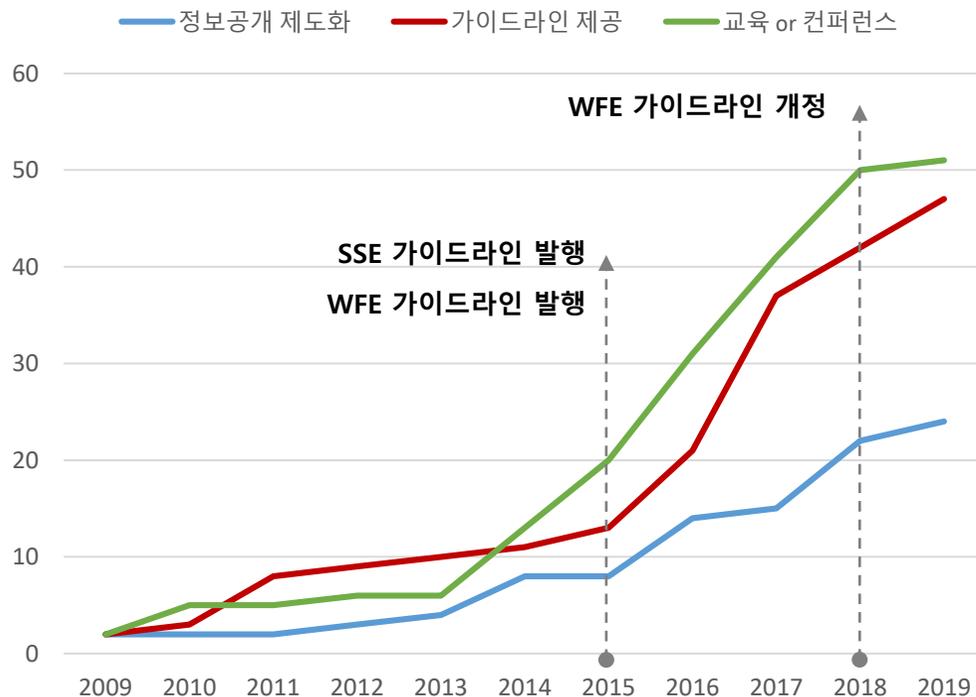
### Aegon N.V. 책임투자 정책 (2020)

- 직접운용자산 및 외부위탁자산에도 적용
- 외부운용사 ESG고려, 주주권행사, 스크리닝 권고 및 PRI 가입, 정기적 책임투자활동 보고 요구
- 책임투자에 중대한 변화 발생시 상세 보고 요구

# Global Stock Exchanges

글로벌 거래소들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9년 기준 23개 거래소가 ESG 정보공개를 제도화하였으며, 51개 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Stock Exchanges Progress towards ESG Disclosure



### 1 ESG 의무/자율 정보공개 공개 제도화 (23 EA)

- 거래소 주도의 공시제도 개정을 통한 상장기업 공개 제도화
- 대부분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
- 드물게 홍콩거래소 등 지표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기도 함

### 2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공 (48 EA)

- 중요 ESG 이슈 선별을 위한 중대성평가 등의 지침
- 일본거래소는 SSE 가이드라인을 번역하여 제공
- 자발적 가이드라인 도입 후 점차 제도화하는 추세

### 3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활동 (51 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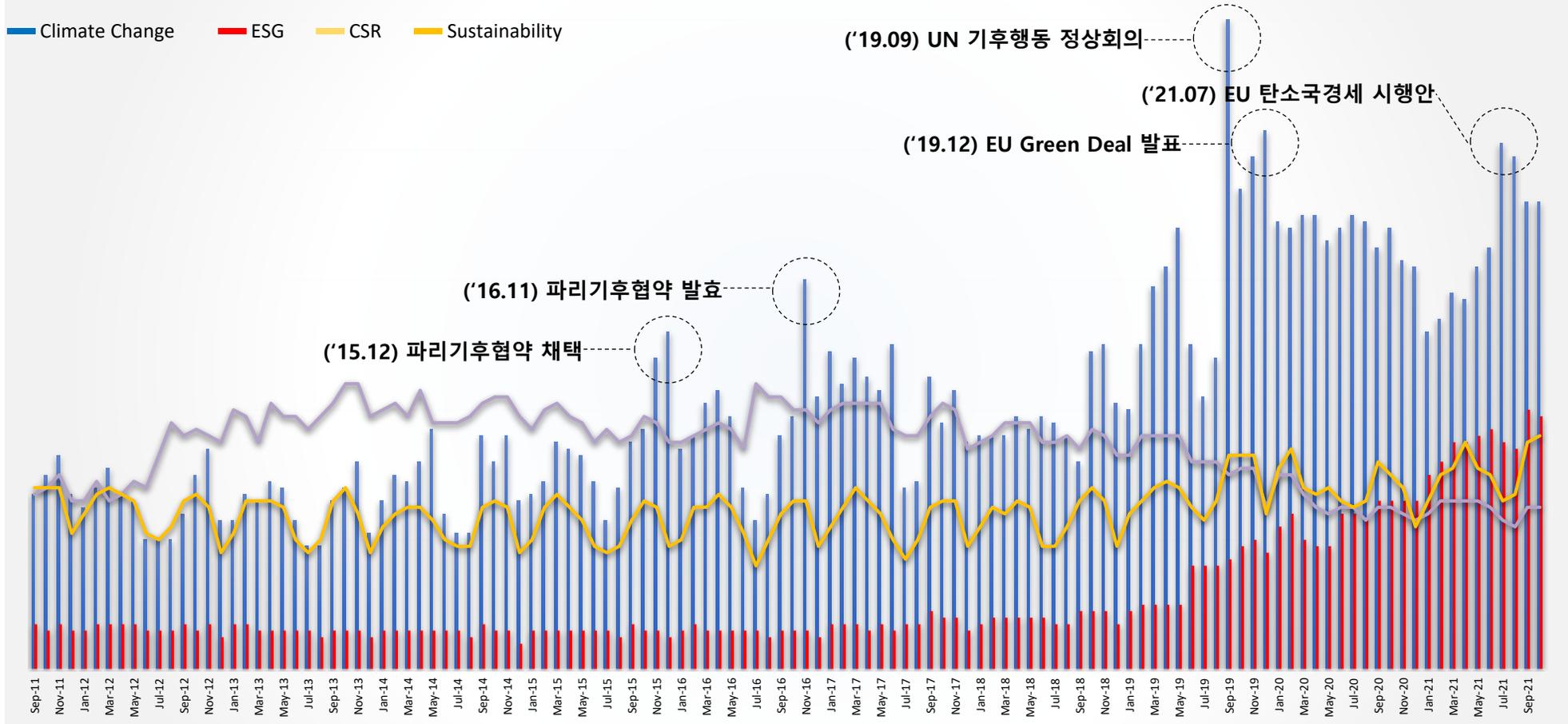
- 기업의 정보공개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 및 정보공개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

- ❖ '15년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SSE)&거래소연맹(WFE)이 ESG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ESG 정보공개를 제도화 하는 거래소 증가
- ❖ ESG 정보공개 제도화 23 EA, 가이드라인 제공 48 EA, 정보공개 활성화 활동 51 EA (해당 거래소 상장여부에 따라 대응 활동 必)

# Key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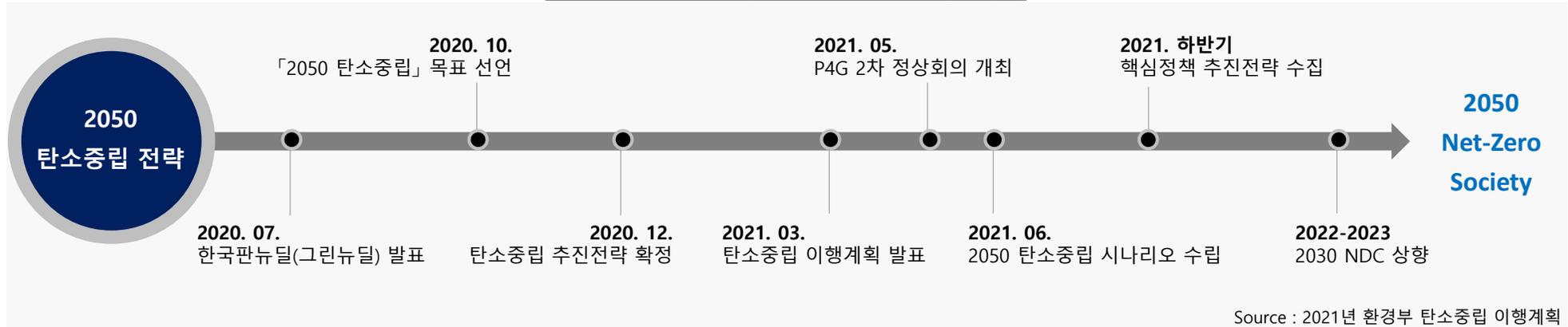
기후변화는 ESG와 함께 Sustainability 분야 Dominant → Sustainability & CSR에 대한 관심은 ESG로 수렴, 기후변화는 단일 이슈로 지속적 관심 증가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 10년간 CSR & Sustainability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3년간 ESG가 강세를 나타냄 (ESG 분야의 거대 담론 = 기후변화 대응)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이행 계획 발표(2021. 03. 03) → 3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 추진

##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및 이행 체계



### 비전

## 2050 탄소중립 사회(Net-Zero Society)의 실현

### 정책 방향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 실행 과제

에너지 전환 / 탈탄소 산업 구조 / 미래 모빌리티 / 탄소중립 도시 / 건물·흡수원 관리 /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 농축산·식품 부문 관리

신유망 산업 육성 / 혁신 생태계 저변 확대 / 녹색기술 혁신

기후위기 적응 / 취약산업 및 계층 보호 / 지역 공동체 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운영 체계 확립

현대제철 포함 협력사의 적극적 감축을 요구하는 정책 도입 → (단기) 재생에너지 확대 공동투자 추진,  
(장기) LCA 평가하여 **온실가스 다소비 원부자재(철강) 구매 금지**

## 공급망 감축 분류 기준



### 그룹 #1

- ❖ 현대차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추진
  - 공통 사업장 국가 내 PPA 공동 지분 투자
  - 탄소 흡수 및 상쇄사업 공동 추진 등

### 그룹 #2

- ❖ 정부/민간 협조 下, 新 정책금융 확보
  - 금융기관 : 현대차 Data 기반 그린 파이낸싱
  - 향후 규제 편입 대비 선제적 금융지원 확보

### 그룹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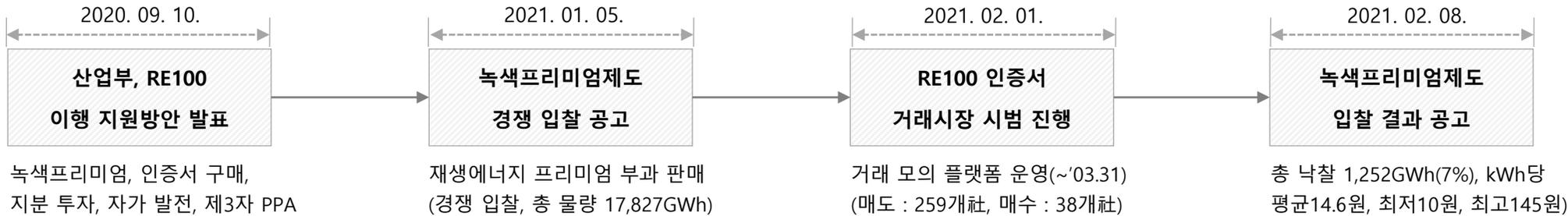
- ❖ 내부 관리체계 지원 →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 유도
  - 동반성장 프로그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지원)

### 그룹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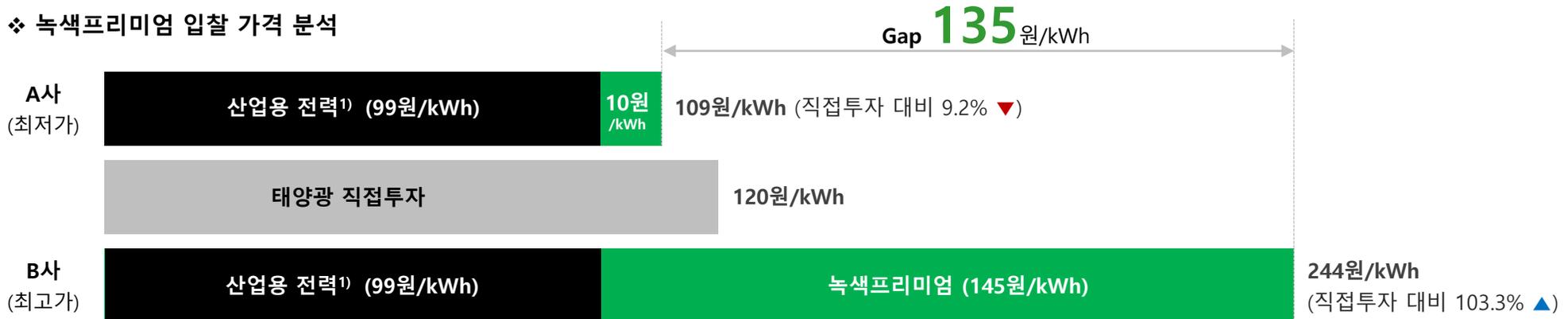
- ❖ 온실가스 다배출 원부자재(철강) 구매 금지
  - (단기) 저탄소 원부자재 구매정책 추진
  - (장기) LCA 기반 원단위 감축 로드맵 추진

RE100 이행 지원제도 중 최초로 진행된 녹색프리미엄제 경쟁입찰 결과가 '21년 2월 공고됨 → 최고 낙찰가(145원/kWh) 태양광 직접 투자의 약 2배 이상 (최저 낙찰가(10원/kWh))

## 국내 RE100 이행 지원 제도



### ❖ 녹색프리미엄 입찰 가격 분석



1) 2021년 1월 산업용(을) 평균 전력단가 기준

Source: 제1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한국전력, 2021.02), 2021년 1월 1일 시행 전기요금 (한국전력, 2021.01)

- ❖ 선도적 신재생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성 高
- ❖ 태양광발전 직접투자,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必

2020년 3월 애플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정에 협력업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 2030년까지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Carbon Neutral 선언 → 현재 71EA 기업이 자발적 참여 중 (4개 한국 기업 포함)

## Apple – Carbon Neutral Commitment



### Renewable Electricity 100% Target (RE100)

- Apple은 2030년까지 사업장(디자인/데이터센터), 공급망, 제품 수명주기에 걸쳐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lobal 71EA Suppliers 대상 탄소중립 참여 요청 (국내 4개사 참여 중)

- Apple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협력사는 Apple에 납품하는 부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를 인증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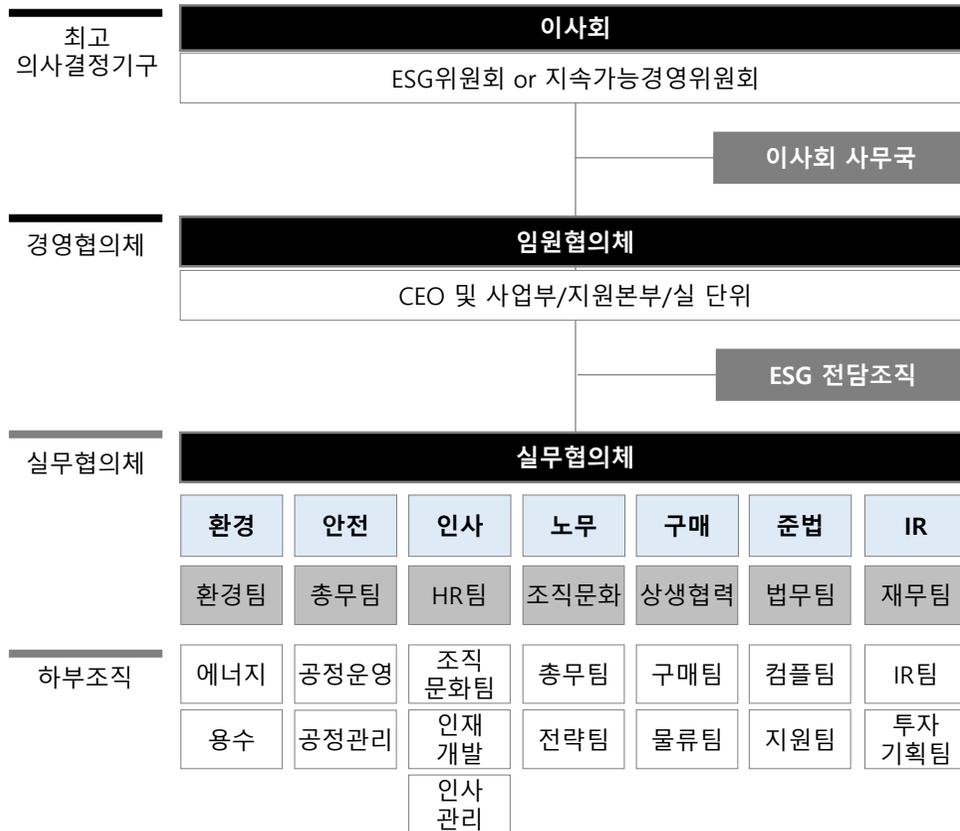
### ❖ Commitment For Carbon Neutral Vision 2030

Source: Apple, Environmental Progress report 2020 (2020.03.26),

<p><b>1</b></p> <p>제품 관점</p>	<p>제품 재처리 기술, 포장재 디자인 등 원부자재 사용 저감 및 친환경 설계 도입</p>	<p><b>1</b> Recycled content - 제품별 재생 원료 40%~100% 사용 목표 설정</p> <p><b>2</b> Low-Carbon Design - 제품 설계부터 탄소발생 감소를 위한 기술도입</p>
<p><b>2</b></p> <p>생산 관점</p>	<p>생산 과정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p>	<p><b>3</b>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 모델의 적용을 통한 일회용 포장의 필요성 저감</p> <p><b>4</b>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한 설비 운영 (생산, 본사, 판매점 포함)</p>
<p><b>3</b></p> <p>협력사 관점</p>	<p>Global Supply Chain 중 부품 협력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권고</p>	<p><b>5</b> Renewable electricity 100% 사용 권고 - 71개 협력사 참여</p> <p><b>6</b> Eliminate waste sent to landfill - 부품생산 시 매립폐기물 0% 목표</p>

이사회 산하 위원회, 임원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담조직으로 구성된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 必  
 → Top-Down 방식을 통한 전사 실행력 확보, Bottom-Up을 통한 ESG Agenda 지속 발굴

## ESG 거버넌스 (예시)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중장기 관점 의사결정 진행**
  - ESG 단기성과 보고 → 중장기 전략 및 투자이사결정 최종 심의
  - 연 8회 이상 개최 권고 → 필요 시 수시개최 권장
- [임원협의체] 사업부/본부/실간 업무조정, 업무추진 협의**
  - 중장기 전략과제 실행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개별 사업부/본부/실의 핵심 ESG 리스크 발의, 최적 대응 Option 도출
- [ESG 전담조직] ES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운영**
  - 전사 ESG 기획-점검-평가, 외부대응/정보공시 등 상시 업무 수행
  - 실무부서 과제수행 지원, 모니터링 실시, 전사 역량강화 추진
- [실무협의체] 지정된 ESG 과제 실행 및 성과 창출**
  - Upper Level에서 설정한 ESG 과제 참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실무부서별 과제 추진현황 공유, 필요 시 상호협조 방안 모색

※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최근 동향에 따라 'ESG위원회' 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확대/개편 검토 必

※ 임원협의체, 실무협의체는 ESG 안건 논의를 위해 별도 설치할 필요 없으며, 기존 업무협의체를 활용하여 운영 가능

'21. 03. 31 기준,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지난해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13 EA, '21년 신규 설치(예정) 23 EA로 확인 → ESG위원회 23 EA, 지속가능경영위원회 9 EA, 기타 위원회 4 EA

##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특징

- ① 순서 : 전담조직, 협의체 등 실행체계 내재화 후 Bottom-Up으로 위원회 설치 Vs. 위원회 우선 설치하여 Top-Down 방식의 실행체계 구축
- ② 명칭 : 기존 성과관리 기능을 보유한 기업 → '지속가능경영위원회'(9 EA) Vs.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반 구축하려는 기업 → 'ESG위원회' (23 EA)
- ③ 운영 : 보고서 발간, 대외평가 대응 등 보고기능 중심 (7 EA) → 전략추진, 자본투자 등 의사결정 진행 (3 EA)



\* 03.22 기준



\* '20년 위원회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상 기재한 10개社 대상

ESG위원회 설치 여부를 넘어, ESG위원회 운영 수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될 것으로 예상 → Symbolic 기능 (보고, 검토) → Substantial 기능 (심의, 의결)

## 2020년 국내 주요기업 위원회 활동

### 보고기능

#### 단기 활동 및 성과

##### SK텔레콤 [기업시민위원회]

- (보고) '20년 Annual Report
- (보고) '20년 동반성장 주요성과
- (보고) '20년 고객가치혁신 현황
- (보고) SV 추진방향 및 프로그램

##### 대한항공 [ESG위원회]

- (보고) '20년 보고서 발간
- (보고) '20년 ESG 평가결과/과제
- (보고) 기후변화 대응현황/과제

##### SK가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보고) '19년 SV창출성과
- (보고) '19년 보고서 초안
- (보고) '20년 CSR 사업계획
- (보고) '20년 SV창출계획
- (보고) 생태보호 CSR 추진계획

##### KT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보고) '19년 지속가능경영 성과
- (보고) '20년 지속가능경영 계획
- (보고) '20년 지속가능경영 성과

### 보고기능

#### 중장기 계획 실행

##### 삼성물산 [거버넌스위원회]

- (보고) 석탄사업 관련 추진방안 논의
- (보고) 석탄화력발전 사업참여 검토
- (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 (보고) '20년 기업지배구조/CSR보고서
- (보고) '20년 비재무분야 추진계획

##### SK하이닉스 [지속경영위원회]

- (보고) '50년 'RE100' 선언
- (보고) '30년 SV 추진계획
- (보고) '20년 DBL RI 진단결과
- (보고) '20년 보고서 Review 반영 결과
- (보고) '20년 보고서 발간계획

### 의결기능

#### 전략수립, 자본투자 추진

##### 신한금융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승인) Zero Carbon Drive 추진
- (승인) 그룹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 (보고)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개발
- (보고) '20년 상반기 지속가능경영 추진

##### KB금융 [ESG위원회]

- (승인) 그룹 ESG 전략방향
- (승인) 그룹 탈석탄 금융 추진
- (보고) 그룹 ESG 추진현황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위원회 설치 이후 Symbolic 기능 (보고, 검토) 위주의 운영 현황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환경/사회 관련 보고 및 의결 건수는 전체 활동 내역의 약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국내 주요기업(33개) ESG 위원회 활동 내역



Source: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 참고, 기업별 ESG 위원회 설치시기에 따라 활동 기간의 차이가 있음

### ❖ 보고 및 의결 안건 주요 내용

보고 안건 주요 내용		
경제 (IR, 사업 및 투자관련, 법인 설립 등)	51	29.8%
ESG일반 (보고서발간, ESG 협의체 보고, 평가 등)	69	40.4%
환경 (탄소중립 이행 점검, Net Zero 추진 방안 등)	8	4.7%
사회 (사회공헌 현황, 윤리경영 활동, 중대재해법 등)	33	19.3%
지배구조 (이사회 선임 및 독립성, 주주권익보호 등)	10	5.8%
<b>Total</b>	<b>171</b>	<b>100%</b>

의결 안건 주요 내용		
경제 (금융거래, 투자관련, 내부거래 등)	33	30.3%
ESG일반 (ESG 전략, 이니셔티브 가입 등)	18	16.5%
환경 (탄소중립 추진(안), 환경규정 개정 등)	5	4.6%
사회 (사회공헌 방향, 기부금 출연, 안전보건 계획 등)	5	4.6%
지배구조 (이사/위원장 선임, 위원회 운영검토 등)	48	44.0%
<b>Total</b>	<b>109</b>	<b>100%</b>

EU는 '20년 1월 공급망 실사 의무 법제화 연구 → '21년 3월 공급망 실사 의무화 입법 권고안 채택  
 → '22년 2월 권고(안) 확정 → EU 회원국별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제/개정 추진

## ESG Due Diligence in the Supply Chain

### EU, 공급망 실사 의무 법제화 연구('20.01)

-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방안별 시나리오 (비용 및 경제·환경·사회·인권 영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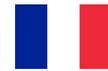
**Level #1** 자발적 지침 적용 (OECD 가이드라인 등)

**Level #2** 실사 정보 공시 의무화

**Level #3** 실사 진행 의무화

-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개선조치 이행 효과 추적
- 프로세스 및 결과 공시

→ 실사 의무화 및 감독하는 규제(Level 3) 수준의 법제화 도입 필요성 제시



프랑스

###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17.02)

- 내용: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 최대 3천만 유로의 벌금 부과
- 대상: 프랑스기업 중 **임직원 5,000명**, 또는 **글로벌 임직원 10,000명 이상**인 기업 대상(자체 사업장)



네덜란드

### A Dutch Child Labour Due Diligence Law('19.05)

- 내용: 아동노동 방지를 위해 실사 진행, 기업 성명서 발표 의무
- 대상: 네덜란드 내 **사업 중인 모든 기업 및 공급망**



독일

### Supply Chain Act 도입 발표('21.02)

- 내용: 공급망 내 인권/환경 규칙 위반 시 벌금 부과('23년 발효예정)
- 대상: 독일기업 중 **임직원 3,000명 이상 기업 및 공급망**(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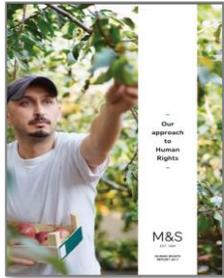
EU

###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입법 권고안 채택 ('21.03)

- 내용: 유럽의회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 하는 입법 권고안 채택** → '21.06 법률 초안 상정 예정
- 대상: **유럽 내 활동하는 모든 상장기업 (중소기업 포함)**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外 별도의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 인권 추진 전략, 인권 경영 추진 거버넌스, 실사 결과 등을 상세 보고

## 별도 인권보고서 발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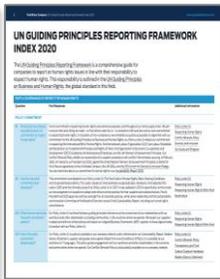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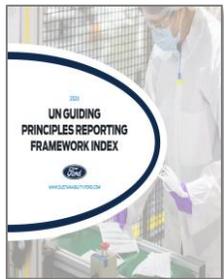
### Marks & Spencer

- UN 글로벌 컴팩트 기준 발간
- 국가별 인권 리스크 요인, 주요 리스크 등을 분석
- 인권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 관련 진행 현황 및 결과 공시**



### Adidas

- 인권 추진 현황 웹 리포팅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권 구제 절차 진행
- **매년 인권 침해 구제 결과 보고서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발간**



### Ford

- Ford 관련 10가지 인권이슈 선정
- **외부기관 실사로 이슈 분석**
- 인권이슈 세부 정책 및 현황 명시
- 2년 주기로 철저한 인권영향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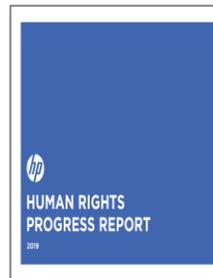
### Unilever

- Unilever 관련 8가지 인권이슈 선정
- 전 공급망 실사로 인권영향 평가
- 인권영향 현황 및 파악되는 **위험원인과 위험국가 보고**
- 문제 해결정책 실행 후 결과보고



### ENI

- 인권경영 내재화 프레임워크 및 인권영향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사범위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이슈 현황 보고**
- ENI 관련 4가지 인권이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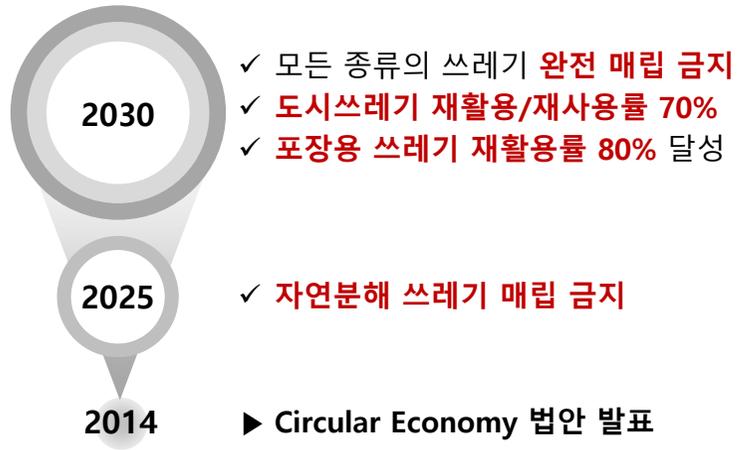


### 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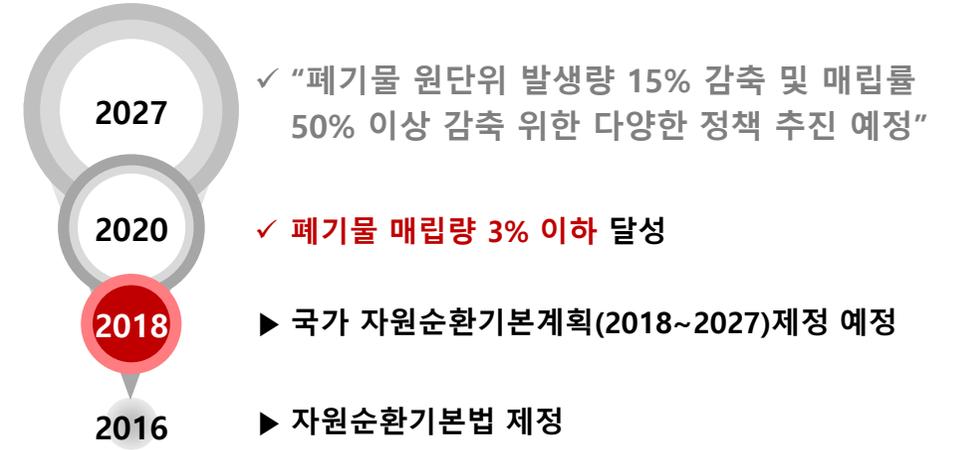
- 인권영향 관리를 위한 HP 인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전사단위 인권영향평가, **인권위험 관리 거버넌스, 개선방향 공시**

Circular Economy 개념이 폐기물 감축/전폐/매립금지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온실가스 이후 폐기물은 새로운 Material Agenda로 부각 中)

 Circular Economy 체제 출범



 자원생산성 개선 목표 설정



**Phenomenon)**

글로벌 경제의 자원 비효율성

- 80%**, 일회성 재화
- 3%**, 석탄의 빛(Light) 전환 효율성
- 1%**, 제품 내 희귀물질의 재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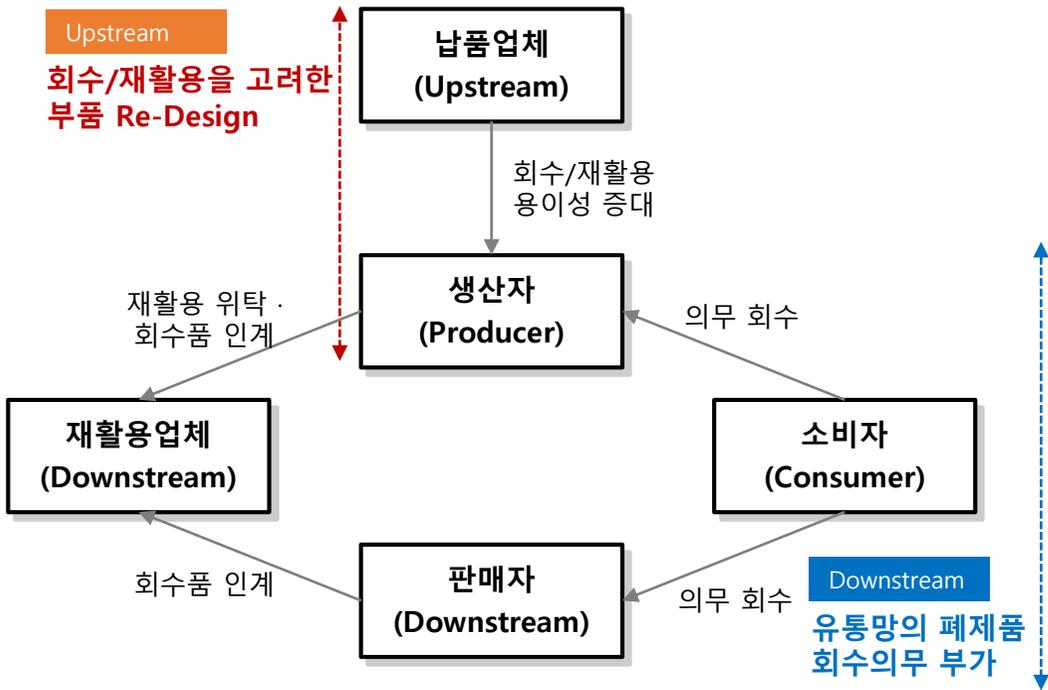
**Phenomenon)**

국내 자원소비 불안정성

- 371조원**, 연간 자원/에너지 지출액
- 90%**, 광물자원의 해외수입 의존도
- 56%**, 에너지 회수 가능 매립 폐기물

제품/포장재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일정량의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 책임 개념이 등장한 이후, Upstream 납품품목의 재활용 가능성 증대, Downstream 유통망의 재활용품 회수의무가 확산됨

## 생산자 책임 이행 전략



## ❖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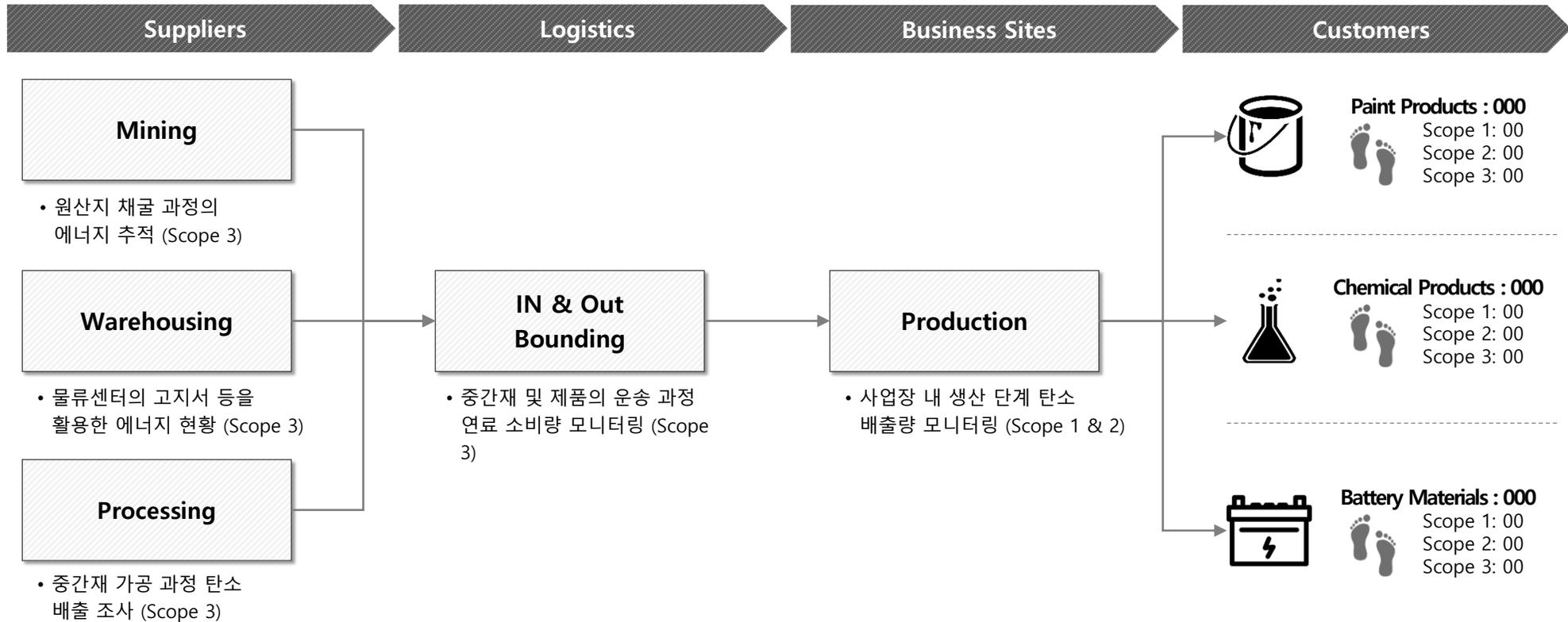
구분	품목	세부품목
제품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전지</li> <li>리튬1차 전지</li> <li>(알카리)망간 전지 등</li> </ul>
	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타이어</li> <li>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타이어 등</li> </ul>
	윤활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윤활유</li> <li>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윤활유</li> </ul>
	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이 포함된 반제품 램프 등</li> </ul>
포장재	일반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팩</li> <li>유리병</li> <li>금속캔</li> <li>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용기, 필름) 등</li> </ul>
	전기기기류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완충재 등</li> </ul>
	1회용 봉투·쇼핑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쇼핑백 (종량제 봉투 제외)</li> </ul>

## Key Implications

- ❖ Upstream 공급망을 대상으로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부품의 Re-design 요구
- ❖ 판매자 및 유통업체도 '생산자 책임'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회수의무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 필요

# CASE.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BA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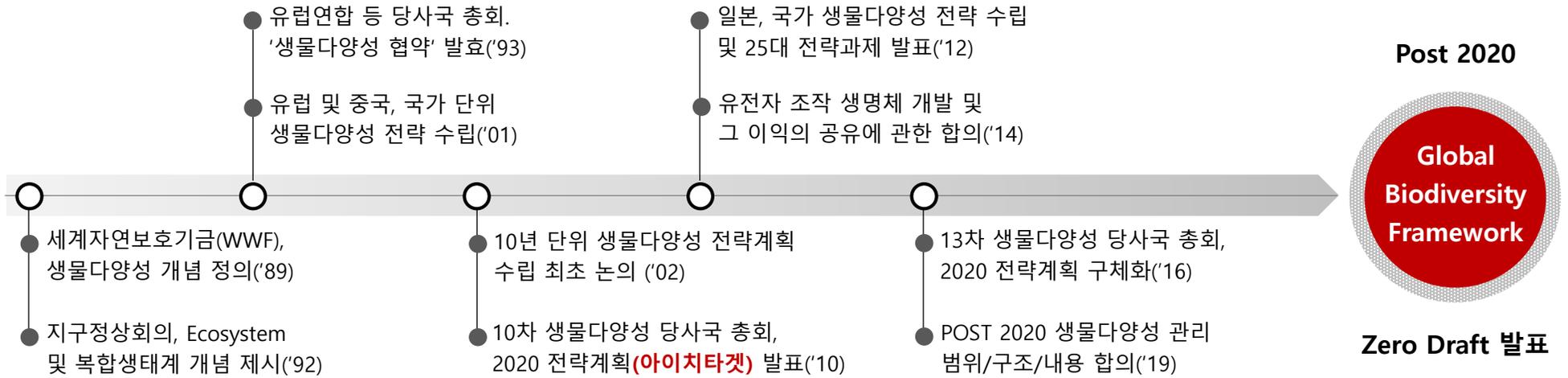
2020년 7월, BASF는 2021년까지 모든 제품(약 45,000개)의 탄소정보를 모든 제품에 표기 하는 '라벨링' 계획을 발표함 → 원재료 채굴, 생산, IN & OUT Bound 순과정 포함



- ❖ 공정별 탄소발생 정보 저장, 계산, 관리 → Scope 1(생산 공정), Scope 2(에너지 소비), Scope 3(공급망배출)를 종합 관리 가능
- ❖ BASF의 가치사슬 상의 탄소배출 현황 파악, 자체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 → 고객에게 제품별 탄소 투명성 제공

2020년 9월,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14차 총회 보고서 공개 → 196개 당사국 정책과제 실행에도 불구하고 목표 미달성, Vision 205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제시

## 생물다양성 보호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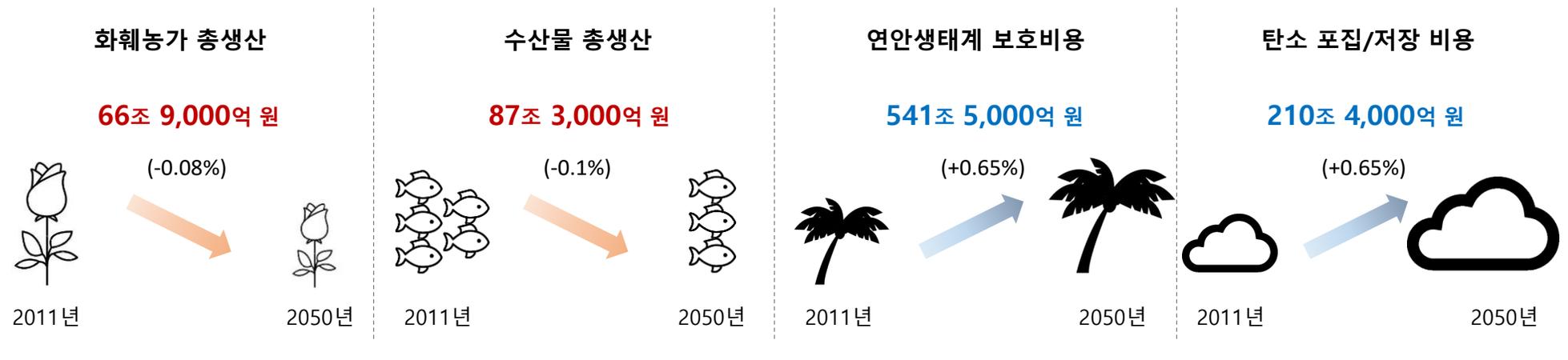
### 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개요

- ❖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14차 총회 시, 2050년까지 전략 수립 필요성 인식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초안 개발 ('19.08 ~ '21.10)**
-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최종본은 당사국 15차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 → **정량 성과 목표, 이행현황 점검 지표, Baseline를 명확히 설정**

<b>Vision 2050</b>	최소 20% 이상 생태계 탄력성 증가	멸종위기 종의 비율을 20% 감소	종의 유전적 다양성 90% 수준 향상	자연재해 복원력 30% 향상	유전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
--------------------	----------------------	--------------------	----------------------	-----------------	--------------------

세계자연기금은 2050년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인해 \$10조 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UNEP FI, 영국/스위스 중앙은행은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구상 중

## 생물다양성 훼손 → Global GDP 영향력



###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주요 Comments

- ▶ “생물다양성 훼손이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 Biodiversity Lead at UNEP FI
- ▶ “온실가스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과 같이, 생물다양성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이 측정되어야 한다.” – Co-Head of ESG research at HSBC
- ▶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생물다양성 연계 대출도 확대되어야 한다.” – Head of Engagement at BNP Paribas
- ▶ “글로벌 ESG기관은 생물다양성 훼손 현황을 확인하려고 하며, 우리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Microsoft President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협정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대통령(Joe Biden)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 발표(2021. 03) → 경제 회복 및 안정화와 함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요소 강조

## 美 바이든 행정부, 2021 통상정책의제<sup>1)</sup>

경제	COVID-19 대응 & 경제회복	• 빠른 시일 내 전 국민 백신 접종 실시, 필수 의료장비의 생산 강화 및 장비/물자 공급망 회복력 증진
	중국 불공정 경제무역 관행 대응	•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및 의무 이행 촉구, 중국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시장 왜곡 해결 방안 모색
사회	동맹과의 파트너십 회복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및 주요 교역국들과 평등 사회, 디지털 전환 등 당면 과제 해결 협력
	규범 준수	• 기존 대비 더 포괄적인 노동/환경 기준 제시, 타 국가의 임금 및 근로자 권리 억압 해결 방안 모색
	전 세계의 공정한 경제 성장	• 임금 격차 해소, 노조 확대,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강제 노동 문제 해결, 여성 권익 신장 등 노력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 노동자 권리 보호, 경제 안보 강화, 수입 제품의 강제노동 여부 검토, 공급망 투명성/책임성 증진
	인종평등 증진, 소외지역 지원	• 소수 인종 지원,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장벽 제거,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 종사자 보호	• 농업, 어업, 임업, 식품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무역 전략 마련, 글로벌 시장 기회 확대
환경	지속가능한 환경/기후변화 대응	• 2050 Net-Zero 기술혁신, 공급망 재생에너지 증진,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제협력 적극 참여

1)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협정 활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의제 및 연례보고서를 매년 1분기에 발표 (무역법 163조)  
Source: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2020. 03, USTR)

ESG Trend 대응을 위해 **Symbolic Action vs. Substantial Practice** 간 괴리로 인한 Washing 논란 확산 → Green(친환경 과장), Blue(인권존중 위장), Brown(ESG 성과 축소), Impact(책임투자 확대)

## ESG Washing

- ❖ 글로벌 ESG 확산에 따라, **대외적으로 ESG 선언, Initiative 가입, 내부적으로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는 행위**
- ❖ 법/규제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형식적 체계를 구축, 실질적 활동은 유지** → Institutional Decoupling
  - 제도적 디커플링(Institutional Decoupling)은 외부변화에 대한 조직의 반응 (조직 보호 vs. 시장 왜곡)

Source: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John W. Meyer & Brian Rowan, 197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Green Washing

#### 친환경 과장 공시

- 기업 활동이나 제품의 환경적 속성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
-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기업의 행동을 의미

### Blue Washing

#### 인권존중 위장 공시

- 인권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인권경영 선언 (시장 이니셔티브 주도)
- '인권 리더십 이미지'만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 License to Operate 획득하는 경우를 의미

※ Blue는 인권경영 원칙을 제시하는 UNGC 로고 컬러에서 유래

### Brown Washing

#### ESG 성과 축소 공시

- 기업의 실제 환경 기여성과를 오히려 축소, 배제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
- 환경성과 정보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관심과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위

### Impact Washing

#### 책임투자 확대 공시

- 지속가능금융 및 책임투자 목표와 성과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
- 구체적 기준 없이 관련 자산을 모두 집계하여 시장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는 경우 의미

ESG Washing  
(White Washing)

언론의 공급망 ESG Media Coverage는 2017년 8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 2018년 ESG 평가기관들의 Issue Raising 과 맞물려 기업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Rise of Supply Chain ESG / 시계열 분석(글로벌)

미디어의 공급망 ESG 관심은 급격히 증가 중



\*Total Impact: 노출기사의 수와 노출기사별 주제연관도, 매체영향력, 복수노출 수준을 합산하여 계산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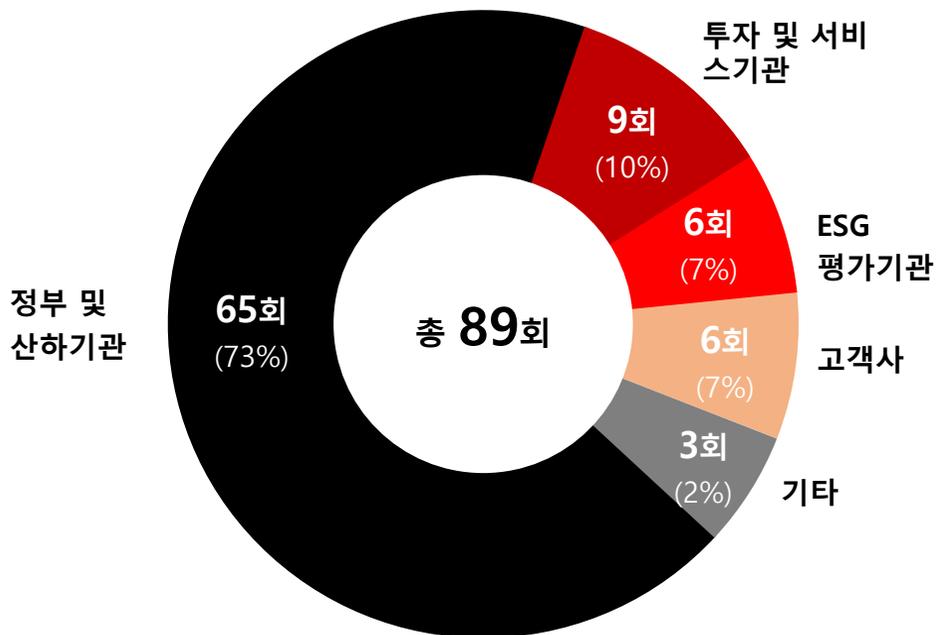
- ❖ 2017년 9월 Modern Slavery Act (2015) 공급망 인권 최초 보고 이후, 평가기관들의 공급망 내 인권조사 항목이 추가되고 있음
- ❖ 공급망 인권 이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ESG 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Industry Initiatives 에 참여하여 공동대응 추진 중

# Agenda #10. ESG 관련 이해관계자 요청

H사는 지난 2년간 48개 기관으로부터 총 89회 ESG 대응을 요청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 및 산하기관(65회), 투자 및 서비스기관(9회), ESG 평가기관(6회), 고객사(6회), 기타(3회)

\* 2018. 01. ~ 2019. 12. (2년 간) 확인된 대외 ESG 정보 요청현황

## ESG 정보 요청현황



요청사항	주요내용
ESG 전반 (1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ESG 리스크 실사</li> <li>• 대외 ESG 평가결과 피드백</li> <li>• 통합보고서 제출 요청</li> <li>• ESG 분야 분쟁/소송 사건</li> </ul>
분쟁광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 여부 모니터링</li> </ul>
사회공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현황</li> </ul>
안전시스템 (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li> <li>•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응</li> <li>• 원하청 통합재해율 관리</li> <li>•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li> </ul>
안전사고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진 중대재해 대응계획</li> <li>• 사고자 발생 및 수습경과</li> </ul>
환경정보 (5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온실가스 정보</li> <li>• 유해화학물질 정보</li> <li>• 폐기물 발생/재활용 정보</li> <li>• 대기/수질오염물질 정보</li> </ul>
환경오염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고로공장 가스확산사고 보고 및 소명</li> </ul>

- ❖ 정부 및 산하기관은 법/규제에 따른 정기점검 지속 실시, But, 환경/안전/노동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활동 강화
- ❖ 최근 투자기관 및 고객사의 ESG 정보 요청 확대 → 투자의사결정 및 거래계약 체결/유지 시 당사의 ESG 성과 반영

계열사별 고객사의 ESG 리스크 평가요청 다수 발생, 완성차 부문도 기업고객으로부터 평가요청 등장  
 → 1) 글로벌 시장 진출, 2) 사업규모 증가, 3) B2B 사업 공급망 ESG 평가요청은 증가할 전망

	현대차	모비스	제철	건설	위아	트랜시스
글로벌 완성차 OEM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aguar Land Rov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MW AG</li> <li>Daimler AG</li> <li>PSA Group</li> <li>Subaru Corp.</li> <li>Volkswagen A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udi Germany</li> <li>PSA Group</li> <li>TESLA</li> <li>Volkswagen A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CA Korea</li> <li>Ford</li> <li>General Moto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CA Group</li> <li>Proton Holdings</li> <li>Renault Group</li> <li>Volkswagen AG</li> </ul>
글로벌 부품사 & 서비스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ase Plan Cor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ivian (Yanfeng)</li> <li>WELSPU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MESA</li> <li>DUFERCO</li> <li>STEELSCAPE</li> <li>ThyssenKrup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rosoft</li> <li>Saudi Armac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erican Axle &amp; Manufacturing</li> </ul>	

- ❖ 유럽 완성차 OEM社 중심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진행 → Drive Sustainability, EcoVadis, 자가지표 활용한 서면진단/현장실사
- ❖ 특히, 현장실사 진행 시 '과거 추진활동', '현재 창출성과' 外 '경영진 메시지 포함 향후 방향성 및 계획'을 점검 中

# Contact Information

김동수 소장

ESG경영연구소

010-2500-8450 / [kds1214@gmail.com](mailto:kds1214@gmail.com)

# KIM & CHANG